

구술자료 상세목록 (구술개요 포함)

사업명	<‘옛’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, 용현동 일대의 변화’>						
사업개요	인천 미추홀구 학익동, 용현동 일대는 염전-공업지대-주거지대로의 변화하는 큰 변화가 진행된 지역임. 이 중 1960-1990년대에 거주 및 근무한 동양제철화학 노동자 및 관리자, 인근 공장의 관계자, 지역주민, 소상공인, 관련 지역사회 인물 등으로부터 인근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증언을 듣고 기록하고자 함.						
구술자명	김노천	성 별	남	출생연도	1966		
면담자	강인형	소 속	3기	검독자	김노천		
면담장소	한국시각예술문화연구소		면담지원	정지선			
면담 일시	2025년	7월	1일	회 차	1	시 간	1시간 10분 58초
자료번호							
구술 개요	- 동양제철화학의 환경적인 문제와 대응 방안 -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동양제철화학의 역할과 중요성 - 옛날의 기억과 현재의 모습 비교를 통한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 - 사진의 기록적인 가치와 중요성 - AI와 역사의 관계와 왜곡 가능성						
주요 색인어	- 동양화학, 용현동, 새인천 폴장, SK, 저유고, 미군 532부대, 학익동, 흥한방직, 용담폴장, 기름탱크, 송암미술관, 이응노, 기증, 인천사진, 허바허바사장, 고사진연구소						
구술 상세목록 내용					시간	관련 파일(비공개)	
1. 근황과 어린 시절, 가족관계					00:00:01 ~00:03:29		
- 인천 학익동 337번지 출생하여 교도소 근처에 거주							
- 아버님은 미군 532부대, 어머니가 흥한방직에 근무하심							
- 어머니, 아내, 딸 2과 현재까지 인천에 거주							
2. 동양화학에 대한 기억					00:03:30 ~00:25:34		
- 어린 시절, 동양화학에 대한 기억은 버스의 종점, 새인천 폴장, 큰 공장, 첨단 화학 공장, 유독가스, 냄새, 자부심 등							
- 성인 시절, 동양화학에 대한 기억은 공장이 점점 쇠퇴하고 있고, 환경 문제가 눈에 들어옴							
- 한편,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게 되어 뜻깊음							
- 총체적으로 동양화학은 인천의 유명한 산업단지로 역할을 함							

- 반면 동양화학은 환경에 가장 위험한 화학 공장으로 기억함			
- 송암미술관 인천시 기부했으나 작품 범위는 살펴볼 필요가 있음 (이응노 화백 작품 여부)			
- 새인천 풀장은 자주 이용하였음			
3. 부모님의 용현동·학익동 직장에 대한 기억		00:25:35 ~00:59:14	
- 아버님은 미군 532부대, 어머니가 흥한방직에 근무하심			
- 그 당시 532부대가 동아풍림, 흥한방직이 인주중학교에 위치하여 담을 사이에 두고 연애를 하셨음			
- 어머니는 방직 공장 근무로 몸이 좋지 않아 10년 근무 후 그만두 심			
- 6번 버스 종점인 동양화학에 내려 걸어서 청학동까지 걸어가는데 청학동에 달걀 도깨비 전설이 있음			
4. 용현동·학익동 사진에 대하여		00:59:15 ~01:10:58	
- 어머니의 흥한방직 재직시절 정장 착용하고 야유회 사진			
- 사진의 기록적인 가치와 중요성			
- 인천 고사진 연구소의 의의			
공개여부	☒ 전체 공개 ☐ 전체 비공개 ☐ 부분 공개		
활용동의	☒ 동의함 ☐ 동의 안 함 ☐ 조건부 동의		
특이사항	없음		